

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땅이 삼켜버린 도심의 비극: 싱크홀(Sinkhole)

원문 주소

<https://www.gklibrarykor.com/4473/>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평소 매일 걷던 아스팔트 도로나 조용하던 주택가 마당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구멍 속으로 푹 꺼져 버리는 현상, 바로 '싱크홀(Sinkhole)'입니다. 뉴스를 통해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차가 빠지는 기이한 광경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. 예고 없이 땅이 붕괴하는 싱크홀은 과연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? 단순히 운이 나빠 발생하는 재해일까요,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지구과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일까요? 이번 자료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싱크홀과 도심 속에서 발생하는 인공적 땅꺼짐 현상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파헤쳐 봅니다. 싱크홀이란 무엇인가? '싱크홀(Sinkhole)'은 말 그대로 '땅이 침강하여 만들어진 구멍'을 뜻합니다. 지구과학 및 지질학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'용식 함지(Dissolution Depression)' 또는 '돌리네(Doline)'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. 싱크홀의 크기는 지름 수 미터의 소형부터, 건물 수십 채를 삼킬 수 있는 지름 백 미터 이상의 대형까지 천차만별입니다. 지표면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내부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, 인간이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